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0권 제1호(1999)
The J. of Korean
Community Nursing
Vol. 10. No. 1. 1999

주요개념 : 성지식, 성태도, 성경험

#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남 명 희*

## Ⅰ.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인간 생활의 기본 요구 중 하나인 성은 인격과 결합되어 있고 생을 풍부하고 아름답게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표현으로 내포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전 인격 형성에 중요한 요소이다(신연식, 1971).

오늘날 사회가 고도의 산업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사회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며, 이에 따라 우리의 의식구조에도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다. 급격한 사회, 문화의 변화로 성에 대한 정보의 범람과 성개발 풍조로 인한 성의식 및 가치관의 큰 변화는 성윤리와 성도덕에 대한 갈등과 성문란을 야기하며, 이로 인해 성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장순복 등, 1997).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미혼모의 대부분이 3~4개월이 넘어서도 임신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할 수 없이 아기를 낳는 사례가 많으며 미혼모의 평균 연령이 20세로 90년도의 22세보다 연소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미혼부의 평균 연령은 24세라고 한다(병원신문, 1993).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1991)에 따르면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여성 가운데 미혼이 삼분의 일을 차지하며, 이 중 25세가 85%, 두 번 이상 수술받은 사람은 50%에 이른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적인 만족이 언제, 어디서나 너무 쉽게 얻어지게 되는 데에 따른 결과이며, 이들의 연령이 바로 대학 재학 연령임을 고려해 볼 때 대학생들의 이성에 대한 관심과 태도, 성에 관한 고민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성에 대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시기에 올바른 성지식을 갖도록하여 무지에서 오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박영신, 1988). 초, 중, 고등학교 과정과는 달리 대학생들은 자기의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써클 활동을 통해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연령상 청소년기 말기 및 성인기 초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성과의 교제는 결혼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윤가현, 1993). 이에 그들에게 부족한 성에 대한 지식이나 편향된 성태도를 가정에서나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하지 않은 일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성연자와 정연강, 1984).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에 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올바른 성정보를

* 동산의료원 순환기 내과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성에 대한 호기심과 갈등을 갖게하고 올바른 성의식 함양에 방해가 되었던 것이다.

올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교육을 공식교과목으로 지정하고, 연령, 학년에 따라 획일적으로 다루어지기보다는 각 개인의 특정한 감정적, 사회적 요구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내용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중심으로 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물론 가정, 혹은 직장과 사회에서도 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이중범, 1993; 김정옥, 1988; 김여옥, 1993; 김상조, 1993). 또한 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각 연령별, 단계별로 무엇을 가장 궁금해 하고 고민하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성교육의 내용이 실제적일 수 있고, 그 효과 또한 클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성적자극이 심화되고 성의식이 개방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경험의 실태를 조사하고 일반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조사함으로써 대학교육에서의 성교육 계획 및 실시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경험을 파악하여 대학 교육에서의 성교육 계획 및 실시방향에 기초자료를 제공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경험의 실태를 파악한다.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대상자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경험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용어정의

1) **성에 대한 지식** : 성의 생물학적, 사회 심리학적인 측면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생식생리, 성병, 피임, 성생리에 관한 지식을 뜻한다(이인숙, 1994). 성지식에 관한 문항은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총합의 점수가 높으면 성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으면 성지식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성태도** : 성행위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혼전 임신의 책임, 결혼전 유산, 결혼 후 유산, 남성의 혼전성교, 여성의 혼전성교, 남성의 혼외 성교, 여성의 혼외 성교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말하며(이인숙, 1994), 성태도에 관한 문항은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총합의 점수가 높으면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인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으면 보수적인 것을 의미한다.
3) **성경험** : 성행위와 관련된 경험의 정도로서, 자위행위, 성교, 피임, 성병, 임신, 유산, 강간에 관한 경험을 말한다(이인숙, 1994).

## Ⅱ. 문헌고찰

### 1. 성지식

성에 관한 지식은 건강한 지식인으로서 알아야 할 성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으로 거기에는 생리적 현상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러한 정보는 사회적, 정서적, 도덕적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얻어져야 한다(성영자, 1984). 그리고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개인의 인식과 가치관, 태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전춘영, 1984).

미국 청소년 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남녀의 성차이에서 생기는 호기심을 지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충족시킨 청소년들은 실제 경험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를 덜 가지게 되는 반면, 그렇게 못한 청소년들은 실제 경험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높다고 하였다(손호은, 1991).

성지식의 출처를 살펴보면, 먼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들중 성영자(1984)의 연구에서는 친구가 97명(67.4%), 교사가 19명(13.2%), 부모가 12명(8.3%), 기타가 16명(11.1%)의 순으로 나타났고, 성지식 습득처는 사전이나 전문지가 70명(48.6%), 월간잡지가 40명(27.8%), 주간지가 13명(9.0%), 라디오 TV가 12명(8.3%), 일간신문 9명(6.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김주연(1993)의 연구에서는 책이나 잡지

가 37.4%이며, 친구가 21.6%, 선생님이 4.0%, 부모가 0.4%이었다. 이인숙(1994)의 연구에서는 친구나 선배가 48.5%(254명), 대중매체가 20.6%(112명), 전문서적 19.4%(106명), 교사 7.3%(40명), 기타 3.7%(20명), 부모 2.4%(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명화(1982)의 연구에서는 친구, 잡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이귀현(1982)의 연구에서는 친구, 학교, 부모, 서적 순이었다. 고등학교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윤귀임(1982)의 연구에서는 친구, 서적, 대중매체 순이었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김소야자(1986)의 연구에서는 친구, 교사, 부모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희정(1985)의 연구에서는 친구, 서적, 대중매체 순이었으며,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한경희(1991)의 연구에서는 교사, 친구/선후배, 서적/대중매체 순이었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진선(1995)의 논문에서는 교사, 부모, 성교육동화, 매스컴, 친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박인혜 등(1996)의 연구에서는 교사, 친구/선후배, 서적/대중매체 순이었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현숙 등(1997)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은 친구, 잡지, 책, 선생님의 순이었으며 여학생은 친구, 대중매체(TV/비디오, 라디오), 선생님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지식 습득원은 주로 친구를 비롯하여 잡지, 대중매체로부터 정확치 않은 정보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바람직한 성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형성을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학교에서는 정규과정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교육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지식에 대해 살펴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은자(1978)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은 수정, 임신, 피임, 순결, 성병에 관한 지식 순으로 모르는 것이 많았고, 여학생은 생식기 생리, 수정, 임신, 피임, 순결, 성병에 관한 지식 순으로 모르는 것이 많았으며, 성영자(1984)의 연구에서는 2.0점 만점에 1.529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영역별 평균치는 성적 자극이 1.65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성애, 자위, 동성애, 인공수정 순이었다고 하였다. 이인숙(1994)의 연구에서는 성지식 점수가 25점 만점중에 평균 14.9점으로 대체적으로 성지식이 낮았으며, 영역별 점수에서 생식 생리에 대한 지식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성생리, 성병, 피임의 순이었다. 그리고 성지식과 관련이 있는 변수로 성경험과 성태도, 학년을 제시하였는데 즉 성경험이 있는 학생, 성태도가 개방적인 경우, 학년이 높을수록 성지식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대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한 이영휘 등(1997)의 연구에서 성지식의 총점 100점 만점에 평균 71.9점을 나타내어 비교적 높은 성지식 수준을 보였으며, 각 항목별로 보면 성병이 78.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임신이 77.5점, 생리기능이 74.9점, 피임이 68.7점, 생식기가 60.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숙(1981)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성지식 정도를 파악한 결과 성에 대해 가장 모르고 있는 것은 피임방법이 90.7%이었고, 그 다음이 성병 87.2%,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과정 84.0%, 그리고 몽정 81.6%의 순이었으며, 김영화(1991)의 연구에서는 성지식 내용에 따라 남녀학생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신체구조의 문항에서는 여학생이, 자위행위와 피임방법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생리현상에 있어서 사정, 몽정은 남학생이, 월경, 배란은 여학생이 성지식 점수가 높았고, 학년이 높을수록 성지식 점수가 높았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은희(1991)의 논문에서는 임신과 월경과의 관계에 대한 성지식의 정답율이 3.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가족계획 17.0%, 성병 38.4%, 월경 69.4%, 몽정 70.6%의 순으로 나타났고, 한경희(1991)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은 몽정에 대해, 남학생은 출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정답율을 보여, 이성에 대한 성지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박애신(1992)의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경우 학년이 높을수록,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학업성적이 우수할수록 성지식이 높았다.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보영(1983)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성에 대한 그릇된 지식을 옳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즉 자위 및 몽정에 대해 70%, 피임에 대해 55%, 생리 생식에 대해 58%, 생식기에 대해 47%, 성병에 대해 45%, 그리고 성행위와 임신에 대해 44%가 그릇된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지식에 대해 연구한 최순희(1990)는 피임에 대해 27.7%의 낮은 정답율을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이 생식기의 구조와 인체의 변화 42.7%, 자위행위 45.8%, 월경 47.8%, 성교 48.8%로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지식 수준은 대체적으로 낮으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학부모들도 그릇된 성지식을 옳은 지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무지나 그릇된 성지식에서 오는 갈등과 고민, 성문란, 성비행들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과 필요성과, 이러한 성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교사의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 2. 성태도

인간이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한 모든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듯이 성행동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학습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다. 올바른 성적 인식과 올바른 성정체감의 확립, 그리고 올바른 실현은 성태도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끌어 가지만, 그러나 올바르지 않는 인식과 행동은 자신과 사회를 성의 황폐화로 몰아갈 수 있다(이근후, 1996). 사춘기에 형성된 성에 대한 태도 여하가 일생동안의 성태도를 좌우하며, 또한 사춘기의 성에 대한 태도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고 성지식을 얻는 시기와 범위, 영향을 준 사람의 태도에 따라 좌우한다(Hurlock, 1973).

Burgess(1953), Landis(1952), 및 Terman(1983) 역시 성적 부적응의 문제는 대부분 성에 대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태도에서 근본적으로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현숙(1977, 1978)의 논문에서는 여자대학생은 혼전 순결에 대해서 79.6%가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한 데에 비하여, 남자대학생은 혼전 순결에 대해 40.9%만이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고, 김은자(1978)는 성행위를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학생의 81.2%로, 남학생의 92.3%, 여학생의 64.2%가 성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욕구충족을 위해 사랑 없이도 성행위가 가능하다고 보는 학생이 44.5%로 남학생의 92.3%, 여학생의 69.2%가 성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성영자(1984)는 성에 대한 태도는 대상자의 144명의 평균치가 3.070으로서 5.0만점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므로 매우 긍정적으로 보였고, 영역별 태도 점수는 유산에 대한 태도가 평균 3.22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교육은 평균 3.211점이고 자위에 대한 태도는 평균 2.652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성행위나 성에 대한 언급을 하여도 수치감이나 죄의식을 덜 느끼며 일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에 대한 지식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이인규, 1984 : 윤가현, 1990)

이인숙(1994)의 연구에서는 성태도 문항에 대한 응답 분포 중 '혼전 임신의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에 대해 12.1%, '결혼 전 유산'에 대해 50.7%, '결혼 후 유산'에 대해 31.2%, '남성의 혼전 성교'에 대해 22.8%, '여성의 혼전 성교'에 대해 17.6%, '남성의 혼외 성교'에 대해 11.2%, '여성의 혼외 성교'에 대해 4.8%가 매우 찬성 내지는 찬성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혼전 임신의 책임소재'에 대해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고, '여성의 혼외 성교'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여전히 남녀 모두가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또한 남자는 괜찮으나 여자는 지켜야 된다는 혼전성에 대한 이중기준은 외국의 경우 최근에는 감소하여 성에 대한 남녀의 태도가 거의 유사해졌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남성이 여성보다 성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남녀간에 이중적인 성기준을 지니고 있음이 나타났다(정아영, 1991).

성에 대한 지식이 확실할수록 성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성에 대한 무지와 그릇된 성지식에서 오는 갈등과 고민, 부정적인 성태도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성교육 실시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 3. 성경험

청소년들은 성적으로 성숙하여 생식 능력을 갖게 되고 성적 호기심과 성충동이 왕성한데 비해 사회적으로는 미성숙하여 실제의 성행위는 제한 받고 있기 때문에 매우 큰 갈등을 겪고 있다. 도시화, 산업화, 과학화로 인한 최근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동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의해 유지 되었던 전통적 성규범을 해체시키고 있으며, 서구 문화의 유입으로 성의 개방과 성정보의 홍수 속에 성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크게 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초의 성교 경험 연령은 9세에서 18세로 평균 12.9세로 나타났으며(Moody, 1990),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교를 경험한 남학생의 88.8%가 15-

19세에, 여학생의 46.6%가 15세 미만에서 첫 성교 경험을 했다(이명화, 1993)

Lucy 등(1980)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15-19세의 인구 2천만명의 반 이상이 성교를 경험하였고, 13-14세 인구 7백만명의 5분의 1이 성교를 하고 있으며, 성행위를 하는 소녀의 80%가 피임을 사용하지 않거나 비효과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1년에 임신율은 91%로 높게 나타났으며, 15-19세의 소녀 1백만명과 15세 이하 3만명 이상의 소녀가 해마다 임신을 한다고 하였으며(Kapp, Taylor & Edwards, 1980), 이들의 임신중에 6명당 5명은 의도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92%가 혼전에 임신을 한다고 하였다(Trussell, 1988)

김은자(197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경험자 분포를 보면 자위경험을 한 학생이 남학생의 81.1%, 여학생의 17.0%로 나타났으며, 성교를 경험한 학생은 남학생이 53.3%, 여학생이 2.5%, 임신, 유산, 성병, 매음굴 출입은 여학생의 경우 경험자가 없었으며 남학생에 있어서만 경험자가 있었는데 임신은 7.1%, 유산은 7.7%, 성병은 13.0%, 매음굴 출입은 34.9%였으며, 강간의 경험자 분포는 남학생이 4.1%, 여학생이 3.1%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성영자(1984)는 성에 대한 경험이 5.0점에서 평균치가 1.573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주므로써 학생들의 행동이 건전하다고 보고하였으며 각 영역별 경험점수는 성경험의 평균치 1.472점, 자위 빈도는 1.917점이며, 피임법 사용을 평균치 1.654점으로 나타났으며, 이귀현(1985)은 키스와 포옹 경험자는 7.2%, 성교경험자는 3.8%로 보고하였다. 김영화(1991)는 성경험을 가진 남녀 고등학생 중 64.9%는 피임을 하지 않았고, 남학생의 경우 39.1%, 여학생의 18.9%만이 피임을 했다고하여 이로 인한 미혼모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은희(1992)은 여고생을 대상으로 성경험을 조사하였는데, 이성교제 경험률이 68.9%, 성교 경험율은 14.4%를 나타냈고, 경험동기는 타의적이 8.9%, 경험대상은 남자 친구가 6.0%, 평소 안면이 있는 사람이 5.9%의 순이었다. 가족이나 친척이 1.7%,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성교 경험도 1.3%를 나타냈다. 김주연(1993)의 연구에서는 혼전순결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가 51.3%, "반드시 지켜야 한다"가 35.6%로 나타났으며 "반드시 지켜야 된다"의 경우 남학생은 28.3%, 여학생은 50.6%로 남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위행위는 남학생은 88.4%가 여학생은 12.8%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키스 경험은 남학생은 59.1%이고, 여학생은 30.1%이며, 성교경험은 남학생이 43.7%이고 여학생은 7.0%로 나타났다. 이인숙(1994)은 자위행위가 60.9%(332명), 성교가 31.2%(170명), 피임이 18.5%(101명), 성병이 3.3%(18명), 강간이 7.2%(39명), 임신이 4.0%(22명), 유산이 2.9%(16명)으로 나타났다.

성경험에 있어서는 성교경험은 학년, 연령, 성별, 부모 생존 여부, 주거 형태, 어머니의 교육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성교 경험이 많았고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교경험이 훨씬 많았다(김은자, 1978; 윤가현, 1990). 부모 생존 여부에 따라서는 결손가정의 학생에게서 성교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 형태에 있어서는 자취나 하숙을 하고 있는 학생이, 지역별로는 도시학생보다는 농촌학생에게서 성교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교를 하게 된 동기를 보면 편부나 편모인 학생이 욕구불만 해소를 위해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더 많았다(윤귀임, 1982; 박영신, 1988).

위의 내용으로 보아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은 서로간에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 각각은 어떤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보다는 개개인의 특성과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는 위의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를 파악하여 대학생들로 하여금 좀 더 올바른 성지식과 건전한 성태도를 지니는데에 도움을 줄 수 잇는 성교육 계획과 실시방향에 기초자료에 기여하고자 한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경험의 실태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경남에 소재한 일 전문대학에 재

학중인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임의 표출(Accidental Sampling)한 297명중 질문지에 대한 불완전한 응답을 한 38명의 질문지를 제외한 25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1998년 6월 1일에서 6월 20일까지 3주간이었다. 자료수집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다.

1) 교무과에서 시간표를 통해 공강과 연결되는 교양과목의 강의실과 시간을 확인하였다.
2) 수업이 끝난후 강의실에 들어가 대상자들에게 시간에 대한 양해를 구한 후 연구의 목적 및 질문지 작성법을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3) 준비한 질문지를 배부한 후 기다렸다 회수하였다.

### 3. 연구 도구

대상자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다음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1) 성에 대한 지식 측정도구

성지식 측정도구는 생식생리에 관한 13개 문항, 성생리에 관한 5개 문항, 성병에 관한 5개 문항, 피임에 관한 2개 문항 등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옳은 진술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한 경우는 정답으로 처리하여 1점을, '아니다'와 '모른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하여 0점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성지식 점수는 1점에서 25점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내적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Cronbach's alpha는 0.79로 나타났다.

2) 성태도 측정도구

성태도 측정도구는 혼전 임신의 책임, 결혼 전 유산, 결혼 후 유산, 남성의 혼전 성교,

여성의 혼전 성교, 남성의 혼외 성교, 여성의 혼외 성교 등의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도록 되어 있다. 개방적인 태도 문항에 대해서 '매우찬성'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5점, '찬성'은 4점, '보통'은 3점, '반대'는 2점, '매우반대'라고 응답한 경우는 1점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성에 대한 태도 점수는 7점에서 35점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태도가 개방적인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내적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Cronbach's alpha는 0.82로 나타났다.

3) 성경험 측정도구

성경험 측정도구는 이성교제의 경험 유무와 교제형태 및 교제 장소, 성문제와 관련된 고민의 내용과 고민의 해결방법, 자위, 성교, 피임, 성병, 강간, 임신, 유산 경험 유무에 대한 객관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4. 자료 분석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2)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문항별, 분포 및 점수를 산출하였다.
3) 성경험은 실수와 백분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4)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성에 대한 지식, 성태도, 성경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수, 백분율, t-test, F-test를 실시하였다.

## Ⅳ.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경남지역 일개 전문대학의 1학년 남녀학생 25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59.5%(154명), 여학생이 40.5%(105명)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14.3%(37명), 천주교 4.3%(11명), 불교 28.3%(73명), 무교 52.3%(135명), 기타 0.8%(3명)이었으며, 출신고교 소재지는 농·어촌이 64.5%(166명), 중소도시 26.1%(67명), 대도시 9.4%(26명)이었다. 부모 생존 여부는 86.9%(225명)가 모두 양친이 계셨으며, 10.4%(27명)가 편모, 1.9%(5명)가 편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29.8%(65명)가 고졸이상이며, 아버지의 학력은 44.4%(115명)가 고졸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중간층이 81.5%(211명)을 차지하였고, 주거형태는 자택이 52.3%(136명), 자취·하숙 44.6%(116명), 친척집 1.9%(5명), 기타 1.2%(2명)으로 나타났다.

성지식 습득경로로는 친구나 선배가 46.7%(121명), 대중매체 30.1%(78명), 전문서적 17.4%(45명), 교사 3.5%(9명), 부모 1.2%(3명)으로 나타났다. 최초 성지식 습득 시기로는 초등학교 1.5%(40명), 중학

교 58.8%(152명), 고등학교 25.0%(65명), 대학교 0.8%(2명)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성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보통이 51.5%(1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수적인 가정이 38.8%(101명), 개방적인 가정이 9.6%(25명)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59)

| 특 성 | 구 분 | 인 수 | 비 율 |
|---|---|---|---|
| 성 별 | 남 | 154 | 59.5 |
| | 여 | 105 | 40.5 |
| 종 교 | 기독교 | 37 | 14.3 |
| | 천주교 | 11 | 4.3 |
| | 불 교 | 73 | 28.3 |
| | 무 교 | 135 | 52.3 |
| | 기 타 | 3 | 0.8 |
| 출신고교 소재지 | 대도시 | 26 | 9.4 |
| | 중소도시 | 67 | 26.1 |
| | 농·어촌 | 166 | 64.5 |
| 부모 생존 여부 | 양친생존 | 225 | 86.9 |
| | 편 모 | 27 | 10.4 |
| | 편 부 | 5 | 1.9 |
| | 양친 안계심 | 2 | 0.8 |
| 어머니의 학력 | 무 학 | 13 | 0.4 |
| | 초 졸 | 105 | 40.5 |
| | 중 졸 | 76 | 29.3 |
| | 고 졸 | 61 | 23.6 |
| | 대 졸 | 2 | 3.1 |
| | 대학원 졸 | 2 | 3.1 |
| 아버지의 학력 | 무 학 | 8 | 3.1 |
| | 초 졸 | 78 | 30.1 |
| | 중 졸 | 58 | 22.4 |
| | 고 졸 | 91 | 35.1 |
| | 대 졸 | 19 | 7.3 |
| | 대학원 졸 | 5 | 2.0 |
| 경제상태 | 상 | 9 | 3.5 |
| | 중 | 211 | 81.5 |
| | 하 | 39 | 15.1 |
| 주거형태 | 자 택 | 136 | 52.3 |
| | 자취, 하숙 | 116 | 44.6 |
| | 친 척 집 | 5 | 1.9 |
| | 기 타 | 2 | 1.2 |
| 성지식 습득경로 | 친구나 선배 | 121 | 46.7 |
| | 전문서적 | 45 | 17.4 |
| | 대중매체 | 78 | 30.1 |
| | 부 모 | 3 | 1.2 |
| | 교 사 | 9 | 3.5 |
| | 기 타 | 3 | 1.2 |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59)

| 특 성 | 구 분 | 인 수 | 비 율 |
|---|---|---|---|
| 최초 성지식 습득시기 | 초등학교 | 40 | 1.5 |
| | 중학교 | 152 | 58.8 |
| | 고등학교 | 65 | 25.0 |
| | 대학교 | 2 | 0.8 |
| 부모의 성에 대한 태도 | 보 통 | 133 | 51.5 |
| | 보 수 | 101 | 38.8 |
| | 개 방 | 25 | 9.6 |

## 2. 대상자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경험 요구 실태

### 2-1 대상자의 성에 대한 지식

대상자의 성지식 점수는 최저 1점에서 최고 25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은 12.01점이었다. 가장 정답율이 높았던 문항은 '정자는 1회 사정시 1개가 배출된다'로서 대상자의 77.9%가 정답에 응답하였고, '난자는 여성의 난소에서 생성된다'가 대상자의 75.2%, '자위시 더러운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것은 세균의 침입을 가져올 수 있다'로서 대상자의 71.4%가 정답을 하였다. 가장 정답율이 낮은 것은 '매독균은 인체 밖에서도 생존가능하다'로서 대상자의 15.1%만이 정답을 하였으며, '복강경 수술은 여성이 하는 피임술이다'는 대상자의 18.5%만이 정답을 하였다(표 2). 영역별 성지식 평균 점수는 성생리 51.8점, 생식생리 49.9점, 성병 44.3점, 피임이 38.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

### 2-2 대상자의 성태도

대상자의 성태도 점수의 범위는 최저 7점에서 최고 31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15.34 점이었다. 성태도 문항에 대한 응답분포를 보면, '남성들은 결혼전에 성교 경험을 가져도 된다' 에 대상자의 12.3%가 매우 찬성이라고 응답하였고, '결혼전에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경우 유산을 해도 된다'가 대상자의 11.1%가 매우 찬성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 문항은 '여성들은 혼회 성교 경험을 가져도 된다'이며 대상자의 40.5 % 매우 반대라고 응답하였으며, '여성들은 결혼 전에 성교 경험을 가져도 된다'가 대상자의 35.6%로 매우 반대에 응답하였다(표 4).

### 2-3 대상자의 성경험

대상자 중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이 80.7%

〈표 2〉 대상자의 성에 대한 지식 문항별 응답분포 및 평점, 표준편차 (n=259)

| 영 역 | 문 항 | 오 답 인수(%) | 정 답 인수(%) | M±SD |
|---|---|---|---|---|
| 성생리 | | | | |
| 1 | 자위행위는 건전한 운동을 통해 줄일 수 있다. | 105(40.5) | 154(59.5) | 0.59±0.49 |
| 9 | 20대 남성은 20대 여성보다 성충동이 강하다. | 118(45.5) | 141(54.5) | 0.54±0.50 |
| *23 | 몽정은 허약한 남성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 109(42.0) | 150(58.0) | 0.57±0.50 |
| *24 | 몽정은 신체적으로 매우 해롭다 | 106(40.9) | 153(59.1) | 0.59±0.49 |
| *25 | 콘돔을 사용하면 조루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 | 187(72.2) | 72(27.8) | 0.28±0.45 |
| 성 병 | | | | |
| 2 | 자위시 더러운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것은 세균의 침입을 가져올 수 있다. | 74(28.6) | 185(71.4) | 0.71±0.46 |
| 4 | 임신부가 매독에 걸리면 태아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 | 108(41.7) | 151(58.3) | 0.58±0.49 |
| 5 | 임질에 감염된 첫 증상으로 남성의 경우 요도부의 통증을 느낀다. | 184(70.8) | 75(29.2) | 0.29±0.45 |
| *16 | 매독균은 인체 밖에서도 생존 가능하다. | 221(84.9) | 38(15.1) | 0.15±0.35 |
| *17 | 성병이 있는 경우 임신이 안된다. | 137(52.8) | 122(47.2) | 0.47±0.50 |
| 피 임 | | | | |
| 6 | 복강경 수술은 여성이 하는 피임술이다. | 212(81.5) | 47(18.5) | 0.18±0.38 |
| 12 | 먹는 피임약은 난소에서 배란이 되지 않게하여 임신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 110(42.4) | 149(57.6) | 0.57±0.50 |
| 생식생리 | | | | |
| 3 | 임신이 가능한 시기는 월경전 11~18일 경이다. | 155(59.7) | 104(40.3) | 0.40±0.49 |
| 7 | 월경혈은 질을 통해서 나온다. | 107(41.3) | 152(58.7) | 0.58±0.49 |
| 8 | 여성은 최초의 성교에서 출혈이 없을 수 있다. | 111(42.8) | 148(57.2) | 0.57±0.50 |
| 10 | 난자는 여성의 난소에서 생성된다. | 64(24.8) | 195(75.2) | 0.75±0.44 |
| 11 | 난자는 1달에 1개씩 생성된다. | 103(39.6) | 156(60.4) | 0.60±0.49 |
| 13 | 폐경기 이후는 임신이 불가능하다. | 102(39.3) | 157(60.7) | 0.60±0.49 |
| *14 | 음경이 자극되어 커지는 것을 사정이라 한다. | 168(64.6) | 91(35.4) | 0.35±0.48 |
| *15 | 임신 기간 동안 태아는 난소에서 자란다. | 137(52.8) | 122(47.2) | 0.47±0.50 |
| *18 | 월경기간 중에 성교를 하면 임신이 된다. | 138(53.1) | 121(46.9) | 0.46±0.50 |
| *19 | 분만시 아기는 엄마의 요도를 통해서 나온다. | 139(53.5) | 120(46.5) | 0.46±0.50 |
| *20 | 정자와 난자는 자궁에서 수정된다. | 201(77.3) | 58(22.7) | 0.22±0.42 |
| *21 | 정자는 1회 사정시 1개가 배출된다. | 57(22.1) | 202(77.9) | 0.18±0.39 |
| *22 | 정액의 90% 이상이 정자로 되어 있다. | 211(81.1) | 48(18.9) | 0.57±0.50 |

*옳지 않은 진술이므로 역환산함

〈표 3〉 대상자의 영역별 성지식 평점 (n=259)

| 영 역 | 문항수 | 평점 |
|---|---|---|
| 성 생 리 | 5 | 51.8 |
| 생식생리 | 13 | 49.9 |
| 성 병 | 5 | 44.3 |
| 피 임 | 2 | 38.1 |

(209명)이었고, 이성교제 형태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정도가 28.6%(44명), 36.2%(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이용하는 이성교제 장소로는 공원 및 야외가 남학생은 36.7%(47명), 여학생은 34.6% (27명), 카페나 주점은 남학생이 30.5%(39명), 여학생은 29.6%(24명)으로 나타났고, 성문제와 관련된 고민의 내용에 있어서 남학생은 이성교제가 39.2%(80명), 성욕구 26.0%(53명), 임신 15.2%(31명)의 순이었으며, 여학생도 이성교제가 24.5%(50명), 성욕구 9.8%(20명), 임신 7.8%(1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남학생은 친구나 선배와 의논이 35.7%(5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포츠나 오락이 23.4%(36명), 술을 마심 17.5%(27명)의 순이으며, 여학생은 친구나 선배와 의논이 46.7%(49명),

〈표 4〉 대상자의 성태도 문항별 응답 분포 및 평점, 표준편차 (n=259)

| 문 항 | 매우찬성 인수(%) | 찬 성 인수(%) | 보 통 인수(%) | 반 대 인수(%) | 매우반대 인수(%) | M±SD |
|---|---|---|---|---|---|---|
| *1. 이성교제시 임신을 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 | 14( 5.4) | 30(11.5) | 93(35.6) | 97(37.5) | 25(10.0) | 3.35±0.99 |
| 2. 결혼전에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경우 유산을 해도 된다. | 29(11.1) | 84(32.2) | 63(24.1) | 52(20.3) | 31(12.3) | 3.10±1.21 |
| 3. 결혼 후에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경우 유산을 해도 된다. | 16( 6.1) | 28(10.7) | 39(14.9) | 113(43.7) | 63(24.5) | 2.30±1.14 |
| 4. 남성들은 결혼 전에 성교 경험을 가져도 된다. | 32(12.3) | 41(15.7) | 87(33.3) | 46(18.0) | 53(20.7) | 2.81±1.27 |
| 5. 여성들은 결혼 전에 성교 경험을 가져도 된다. | 5( 1.9) | 26(10.0) | 76(29.1) | 60(23.4) | 92(35.6) | 2.19±1.09 |
| 6. 남성들은 혼외 성교 경험을 가져도 된다. | 17( 6.5) | 20( 7.7) | 61(23.4) | 84(32.6) | 77(29.9) | 2.28±1.16 |
| 7. 여성들은 혼외 성교 경험을 가져도 된다. | 2( 0.8) | 16( 6.2) | 49(18.9) | 87(33.6) | 105(40.5) | 1.93±0.95 |

*보수적인 진술이므로 역환산된 문항임

스포츠나 오락 11.4%(12명), 부모와 상의 11.4%(1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대상자의 성경험과 관련된 특성 분포(n=259)

| 영 역 | 구 분 | 성 별 남자 N(%) | 여자 N(%) |
|---|---|---|---|
| 이성교제의 형태 | 대화하는 정도 | 29(18.8) | 19(18.1) |
| |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정도 | 44(28.6) | 38(36.2) |
| | 키스나 애무 | 34(22.1) | 13(12.4) |
| | 성기접촉이나 성교 | 23(14.9) | 9( 8.5) |
| | 이성교제 경험 없음 | 24(15.6) | 26(24.8) |
| 이성교제 장소 | 공원 및 야외 | 47(36.7) | 27(34.6) |
| | 문화행사장 | 3( 2.3) | 4( 4.9) |
| | 카페나 주점 | 39(30.5) | 24(29.6) |
| | 스포츠 센터 | 0( 0.0) | 1( 1.2) |
| | 집 | 15(11.7) | 91( 1.1) |
| | 거리 | 13(10.2) | 91( 1.1) |
| | 교회나 성당 | 3( 2.3) | 1( 1.2) |
| | 기타 | 8( 6.3) | 5( 6.3) |
| 성문제와 관련된 고민 | 이성교제 | 80(39.2) | 50(24.5) |
| | 성욕구 | 53(26.0) | 20( 9.8) |
| | 자위행위 | 29(14.2) | 6( 3.0) |
| | 성적성숙의 정상여부 | 19( 9.3) | 9( 4.4) |
| | 직접적인 성관계 | 29(14.2) | 13( 6.4) |
| | 성병 | 23(11.3) | 9( 4.4) |
| | 임신 | 31(15.2) | 16( 7.8) |
| | 근친상간 | 4( 2.0) | 5( 2.5) |
| | 성적피해 | 19( 9.3) | 11( 5.4) |
| | 기타 | 2( 1.0) | 3( 1.5) |
| 성문제 해결방법 | 친구나 선배와 의논 | 55(35.7) | 49(46.7) |
| | 술마심 | 27(17.5) | 5( 4.8) |

〈표 5〉 계속 (n=259)

| 영 역 | 구 분 | 성 별 남자 N(%) | 여자 N(%) |
|---|---|---|---|
| | 스포츠나 오락 | 36(23.4) | 12(11.4) |
| | 전문서적 참고 | 12( 7.8) | 10( 9.5) |
| | 부모와 상의 | 2( 1.3) | 12(11.4) |
| | 전문가와 상의 | 8( 5.2) | 8( 7.6) |
| | 자위행위 | 7( 4.5) | 3( 2.9) |
| | 억제 | 6( 3.9) | 5( 4.8) |
| | 기타 | 1( 0.7) | 1( 0.9) |

대상자의 성경험 분포를 보면, 자위행위는 남학생이 81.2%(125명), 여학생이 11.4%(12명), 성교경험은 남학생 40.0%(60명), 여학생 13.3%(14명), 피임은 남학생 7.8%(12명), 여학생 2.9%(3명), 성병은 남학생 3.9%(6명), 여학생이 1.9%(2명), 강간은 남학생이 12.3%(19명), 여학생이 10.5%(11명), 임신은 남학생이 12.3%(19명), 여학생이 6.8%(7명), 인공유산은 남학생이 12.3%(19명), 여학생은 5.7%(6명)으로,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경험과의 관계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 점수의 차이

전체적인 성지식 점수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성지식 점수가 높았으며, 영역별 성지식 점수를 보면

〈표 6〉 대상자의 성경험 분포 (n=259)

| 영역 구분 | | 성별 | |
|---|---|---|---|
| | | 남자 N(%) | 여자 N(%) |
| 자위행위 | 유 | 125(81.2) | 12(11.4) |
| | 무 | 29(18.8) | 93(88.6) |
| 성교 | 유 | 60(40.0) | 14(13.3) |
| | 무 | 94(60.0) | 91(86.7) |
| 피임 | 유 | 12( 7.8) | 3( 2.9) |
| | 무 | 142(92.2) | 102(97.1) |
| 성병 | 유 | 6( 3.9) | 2( 1.9) |
| | 무 | 148(96.1) | 103(98.1) |
| 강간 | 유 | 19(12.3) | 11(10.5) |
| | 무 | 135(87.7) | 94(89.5) |
| 임신 | 유 | 19(12.3) | 7( 6.8) |
| | 무 | 135(87.7) | 98(93.2) |
| 인공유산 | 유 | 19(12.3) | 6( 5.7) |
| | 무 | 135(87.7) | 99(94.3) |

생식생리(t=−7.342, p=0.000), 성병(t=−2.431, p=0.16), 피임(t=−2.291, p=0.23)에 관한 지식점수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지만, 생식생리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생리(t=1.578 p=0.116)에 관한 지식 점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대학을 졸업한 아버지를 둔 학생이 피임(t=2.421, p=0.036)에 대한 성지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종교, 출신고교 소재지, 부모의 생존 여부, 경제상태, 주거형태, 성지식 습득경로와 부모의 성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 점수의 차이

전반적으로 남학생(18.91점)이 여학생(16.55점)에 비해 개방적인 성태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4.456, p=0.000)가 있었다. 종교별로는 무교가 성태도에 개방적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4.315, p=0.002)가 있었고, 출신고교 소재지는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성태도에 개방적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3.150, p=0.045)가 있었다. 주거형태는 자택에 사는 학생들의 성태도가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F=3.164, p=0.025), 성지식 습득을 전문서적, 친구/선배를 통하여 얻게 된 경우 성태도가 개방적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2.990, p=0.012)가 있었다.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경험 점수의 차이

대상자의 성경험 분포는 자위행위에 있어 남학생이 81.2%($X^2$=120.627, p=0.000), 성지식습득경로가 친구나 선배가 45.6%($X^2$=17.965, p=0.003), 부모의 성태도가 보통인 경우가 54.4% ($X^2$=10.607, p=0.005) 자위행위 경험이 많았다. 성교경험은 남학생이 40.0%($X^2$=21.424, p=0.000)로 여학생에 비해 성경험이 많으며, 출신고교 소재지가 농, 어촌인 경우 50.7% ($X^2$= 16.864, p=0.000), 경제상태가 중인 경우가 75.3%($X^2$=7.108, p=0.029), 주거형태가 자취, 하숙인 경우 52.7%($X^2$=12.517, p=0.006), 성지식 습득경로가 친구나 선배인 경우가 44.6% ($X^2$= 13.443, p=0.020)인 경우가 성교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은 주거형태가 자택인 경우가 46.7% ($X^2$=20.856, p=0.000), 성지식 습득경로가 친구/선배 40%, 대중매체 40%($X^2$=2.800, p=0.000)인 경우, 부모의 성태도가 보통인 경우 53.3($X^2$=6.684, p=0.035)가 피임경험이 많았다. 성병은 출신고교 소재지가 대도시가 37.5%, 농, 어촌이 37.5%($X^2$=7.903, p=0.019)로 성병발생율이 많았으며, 자택, 자취/하숙이 각각 37.5%($X^2$=41.107, p=0.000), 친구/선배를 통해서 성지식을 습득한 학생이 37.5%($X^2$=41.064, p=0.000)로 성병발생율이 높았다. 강간은 자택에 사는 학생이 50.0%($X^2$=9.589, p=0.022), 친구/선배를 통해서 성지식을 습득한 경우 56.7%($X^2$=13.216, p=0.021)로 강간경험이 많았으며, 임신경험은 중, 소도시에 사는 학생인 경우 48.0%($X^2$=9.821, p=0.007), 자취, 하숙을 하는 경우 53.8%($X^2$=12.775, p=0.005), 친구/선배를 통해 성지식을 습득한 경우 42.3%($X^2$=28.322, p=0.000)가 임신경험이 많았다. 인공유산은 자택에 사는 학생이 48.0%($X^2$=11.811, p=0.008), 친구.선배를 통해서 성지식을 습득한 경우 44.0%($X^2$=11.586, p=0.041)가 인공유산 경험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경험과 관련된 변수로는 성별, 출신고교 소재지, 경제상태, 주거형태, 성지식 습득경로, 부모의 성태도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경험의 실태를 규명하여 대학교육에서

의 성교육 계획 및 실시방향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1998년 6월 1일에서 6월 20일까지 경남에 소재하는 일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1학년 학생 2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t-test, F-test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성지식 점수는 최저 1점에서 최고 25점으로 평균은 12.01점이었다. 성지식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성지식 가운데 성생리에 대한 지식이 가장 높았으며, 피임에 대한 지식이 가장 낮았다.
2. 대상자의 성태도 점수는 최저 7점에서 최고 31점으로 평균은 15.34이었다.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던 문항은 '남성들은 결혼전에 성교 경험을 가져도 된다'에 대해서 였고, 가장 보수적인 문항은 '여성들은 혼외 성교 경험을 가져도 된다'에 대해서였다.
3. 대상자 중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이 80.7%이었고, 이성교제 형태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정도가 가장 많았으며, 성문제와 관련된 고민의 내용에 있어서 남학생, 여학생 모두 이성교제, 성욕구, 임신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문제 해결 방법으로도 남학생, 여학생 모두 친구나 선배와 의논, 스포츠나 오락의 순으로 나타났다.자위행위, 성교경험, 피임, 성병, 강간, 임신, 인공유산과 같은 성경험은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성지식 점수의 차이를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생식생리에 관한 성지식 점수가 높았으며 대학을 졸업한 아버지를 둔 학생이 피임에 대한 성지식 점수가 높았다.
5.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성태도 점수의 차이를 보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종교는 무교일 때, 출신고교 소재지가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성태도에 개방적이었다. 또한 주거형태는 자택에 사는 학생들이, 성지식 습득을 전문서적이나 친구/선배를 통하여 얻게 된 경우에 성태도가 개방적이었다.
6.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성경험 점수의 차이를 보면, 남학생, 성지식 습득경로가 친구/선배, 부모의 성태도가 보통인 경우가 자위행위 경험이 많았다. 남학생, 출신고교 소재지가 농·어촌, 경제상태가 중인 경우, 주거형태가 자취/하숙, 성지식 습득경로가 친구/선배인 경우가 성교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가 자택, 성지식 습득경로가 친구/선배나 대중매체, 부모의 성태도가 보통인 경우에 피임경험이 많았다. 출신고교 소재지가 대도시나 농·어촌, 주거형태가 자택이나 자취/하숙, 습득경로가 친구/선배일때 성병 발생율이 높았다. 자택에 사는 학생, 친구/선배를 통해서 성지식을 습득한 경우에 강간경험이 많았다. 중·소도시에 사는 학생, 자취/하숙을 하는 경우, 친구/선배를 통해 성지식을 습득한 경우 임신경험이 많았다. 자택에 사는 학생이, 친구/선배를 통해서 성지식을 습득한 경우가 인공유산 경험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올바른 성지식 습득을 위해 성과 관련된 교과목의 개설이 필요하며 성문제를 지닌 대상자들에 대한 상담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태도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3.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경험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이 규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4. 일 개 대학생들에게 국한되어 실시한 연구이므로,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강현숙 (1977). 여대생들의 성에 관한 인식 및 태도 조사연구. 경희간호연구지, 1, 59-68.

강현숙 (1978). 남자대학생들의 성에 관한 인식 및 태도 조사연구. 경희간호연구지, 2, 51-59.

김신미, 한선미 (1990). 미혼 여성근로자의 가족계획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인구보건논집, 5, 19-30.

김은자 (1978). 일 대학교 남녀학생의 특성에 따른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의 실태와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희 (1990). 서울 지역 여자 상업고등학교의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4(2), 100-118.

김용숙 (1977). 여대생의 이성교제에 대한 조사. 국군간호학교 논문집, 1(8).

김정옥 (1989). 학교 성교육의 내용체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주연 (1993).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한경 (1983). 학교외의 가정생활 및 성교육 : 고등학교 성교육 세미나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77-91.

박영신 (1988). 일부 사범대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53(6), 393-413.

박애신 (1992).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지식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병원신문 (1993). 한국부인회 실태관련 세미나, 631, 14.

성영자 (1984). 남녀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과 상관변인에 관한 분석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호은 (1991). 국내 성교육용 영상교재에 관한 연구 : 중·고등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효성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연식 (1971). 올바른 성이해. 계명대학보, 5, 71-79.

안보영 (1983). 중등교사의 성에 관한 지식과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근후 (1996). 사회변화와 성교육. 교육월보, 8, 44-47.

이귀현 (1986). 성교육후 일개 고등학교 여학생의 성에 관한 태도 및 지식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인규 (1984). 일부 도시지역 남녀 고교생의 성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의학, 42(7).

이인자 (1994). 일부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휘, 박미라, 송미숙, 유진희, 최난순, 한유미, 황윤정 (1997).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7(1), 26-35.

이중범 (1983).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태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가현 (1992). 성의 심리학. 성원사.

윤귀임 (1982). 남녀 고교생 성지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명화 (1993). 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 서울 YMCA 청소년 상담실.

장순복, 최연순, 김혜숙 (1992). 미혼 근로 여성의 성문제 분석. 최신의학, 35(8), 103-112.

전춘영 (1974). 임상간호사를 위한 실무교육과정으로서의 가족계획.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아영 (1991). 여고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관심도에 관한 조사.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정숙 (1981). 고교생의 성교육 필요성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순희 (1990).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성교육 요구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한경희 (1991). 중등학생 성지식 실태와 성교육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 석사학위논문.

Burgess, E. W., & Wallin, P. (1953). Engagement and marriage. Philadephia: J. B. Lippincott Co.

Hurlock, E. B. (1973). Child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Book Co.

Kapp, L., Taylor, B. A., & Edwards, L. E. (1980). Teaching human sexuality in junior high school :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J sch Health, 50, 80-83.

Kinsey, A. C. (1953).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female. Philadelphia and London, W. B. Sounders Co. 132-190

Landis, J. P., & Landis, M. G. (1952). Reading in marriage and the famiy, 2nd. Prentice hall, 126-141.

Moody, L. P. (1990).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ected situational and demographic variables influencing contraceptive use and pregnancy risk among adolescents.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Terman, L. M. (1983). Psychological factors in marrital happiness. New York, Mcgraw Hill Book Co.

Trussell, J. (1988). Teenage pregnancy in the United States. Fam Plan Perspect, 20(6), 262-272.

-Abstract-

Key concept :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Sexual experience

## A Study on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College Students

*Nam, Myung Hee**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measure the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college students in order to provide better sex education programs and direction.

For this study,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259 students in K college of Kyongnam and collected during the period of June 1 to June 20, 1998.

Data was analyzed using a statistical computer package : SPSS to manipulate the data along with frequency, mean, t-test, F-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ency.

The results from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

1. Sex related knowledge marked 12.01 at a maximum level of 25. In the areas of Sex physiology(51.8%), genital physiology(49.9%), venereal diseases(44.3%) and contraceptive methods(38.1%), students were shown to have certain levels of knowledge.
2. Sex related attitudes marked 15.35 at a maximum level of 35. The most frank attitudes concerned 'premartial coitus in males'and the most conservative attitudes concerned 'extramarital coitus in females'.
3. Concerning sexual behavior 80.7% of the respondents had associated with the opposite sex. The most frequent behaviors were walking arm in arm(male : 28.6%, female : 36.2%). Their main problems were relationships with the opposite sex(male : 39.2%, female : 24.5%), frustrated sexual desire(male : 26.0%, female : 9.8%) and unwanted pregnacy(male : 15.2%, female : 7.8%)

   To solve sex problems, respondents intended to consult their friends(male : 35.7%, female : 46.7%) and become active in sports or recreation (male : 23.4%, female : 11.4%).

   About 81.2% of male students had a masturbation experience, but only 11.4% of female did, 40.0% of male students had a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but only 13.3% of females did, 7.8% of male students used contraceptive methods, but only 2.9% of females did. 12.3% of male students had a rape experience, but only 10.5% of females did. The proportion of male students who made someone pregnant was 12.3%,however pregnant female were only 6.8% and the proportion of male students who forced someone to have an abortion was 12.3%, females who experienced an abortion were only 5.7%.
4. Regarding genital physiology,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t=-7.342$, $p=0.000$). Regarding contraceptive method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ather's education level($F=2.421$, $p=0.036$)
5. In sexual attitude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t=4.456$, $p=0.000$), religion($F=4.315$, $p=0.000$), high school($F=3.150$, $p=0.045$), habitation form($F=3.164$, $p=0.0025$ and methods of acquiring sexual knowledge($F=2.990$, $p=0.012$).
6. The variables regarding sexual experience were gender, high school, economic status, habitation form, method of acquiring sexual knowledge, and parental attitudes toward sex.

From the result of the study, sex education is required and must be taught as a regular course in the curriculum of all Korean schools at all levels.

* DongSan Medical Center Cardiology, R.N.